



## 사회 · 문화적 경쟁력의 중요성과 지표

김진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경쟁력 개념의 확대 적용 문제

사회는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구성 층위는 개인, 조직 및 산업, 제도, 전체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성 스펙트럼상에서 보면, 전체사회 수준으로 갈수록 거시적 · 종합적이고, 개인 수준으로 갈수록 미시적 · 개별적이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은 기업 차원의 경영능력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사용돼 왔다.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 사이의 중범위적(middle range) 수준(미시적 수준에 더 가깝다)에 위치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온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요 단위인 만큼, 기업이 경쟁력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이 일국 단위, 국민국가 단위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세계체제 내에서 치열한 기업간 경쟁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즉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쟁력 개념의 적용대상 범위는 기업과 같은 중범위적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포와 외연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범수준적 단위로 확대되어 적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개인, 산업, 국가(country)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경쟁력의 개념적 유용성이 확인되고, 그 적용범위가 전범위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강고하게 작동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격랑이 거세지면서 시장에서의 국가단위의 경계와 규범이 과거에 비해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행위주체들이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게 되면서 경쟁력은 생존적 차원에서 모색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근인(近因)으로는 IMD(국제경영개발원)와 WEF(세계경제포럼)가 각각 세계 주요국가의 경쟁력 비교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부터일 것이다. IMD가 1987년부터 매년 <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WEF는 1996년부터 <세계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경쟁력 개념은 국가의 수준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보고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여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체제상에서 국외자본의 유치와 진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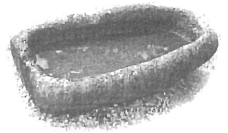
이러한 경쟁력 개념의 확대 적용과 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의 개념을 지역의 차원으로 이동시켜 경쟁력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로 집중된다. 미시적·중범위적 수준에서 개발된 경쟁력의 개념을 지역이나 국가로 확대 적용할 경우, 지역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은 단순히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이나 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그것의 환경을 이루는 정치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조건과 특성에서 분리되어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여건이나 산업여건은 그 자체의 내부적 요인들에 의해 그 능력과 성과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의 환경을 이루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이나 산업 등으로 경제체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open system)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IMD나 WEF가 내놓은 국가경쟁력 보고서도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력 개념의 적용은 구성 수준상의 대상에서만뿐만 아니라 내용 범위에서도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식의 틀하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경쟁력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소의 중요성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의 경쟁력 개념은 주로 기업 또는 산업에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경영여건 또는 산업여건과 그 성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IMD나 WEF는 경쟁력 개념의 적용대상을 국가 수준으로 확대함은 물론 내용범위도 확대하여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적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WEF는 국가경쟁력 영역(dimensions)을 개방성, 정부, 금융, 인프라스트락처, 기술, 경영, 노동, 제도 등 8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제도 영역에서 약간의 사회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IMD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경제, 국제화,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기업, 과학기술, 인적자원 등 8개 영역 중에서 국제화와 인적자원 영역에서 사회관련 지표를 약간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경쟁력은 입지적, 자연적 요소에 의해 힘입은 바가 크다. 지역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감귤과 관광산업은 이러한 입지적, 자연적 비교 우위에 기반한 것이었다. 또한 이 경쟁력은 국내의 다른 지역들 간의 비교 우위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국가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지역이나 국가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가간, 지역간 보호장벽의 작동은 한계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된 환경의 변화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제주경쟁력의 내용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이 요구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구상과 출범은 제주발전의 한계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때 경쟁력 향상의 문제는 그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사회문화는 지역경쟁력을 재인식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사회적 경쟁력은 지역주민들의 의식, 태도, 가치 등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안전, 규범적 통합, 사회복지, 사회적 평등, 사회통합 등 제도적, 구조적, 거시적인 것들을 포함한다. 문화적 경쟁력은 주민들의 문화의식, 지역문화가 갖는 독특한 특성과 역량, 문화의 다양성과 개별적 문화의 정체성,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부터 문화체제의 자율성 확보, 삶의 양식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정책(예컨대 전통문화의 보존과 재창조지원, 문화산업지원, 문화의 국제적 교류지원)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경쟁력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문화적 경쟁력은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최근 탈산업사회적 특성들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비중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과거 산업생산에서 경제적 자본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으며, 물질적 부의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식정보가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된다.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제주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자본은 풍부한 창의

성과 아이디어 생산의 저수지 역할을 할 것이며,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일수록 외부 자본이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적, 매력적 요소(pull factors)를 갖게 된다.

지역주민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사회가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추동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반대로 이를 견인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유관적합성의 정도가 높은 의식과 가치가 불가결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일찌기 막스 베버(M. Weber)가 분석했던 것처럼 다른 사회들에 비해 서구사회가 빠르고 견고하게 이룩한 자본주의적 산업발전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시민의식과 윤리의식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청교도적 윤리의식과 개척의식으로 집약되는 프론티어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사회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아시아적 가치가 동아시아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근거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안전 수준이 높고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낮다면 그 사회는 낮은 사회갈등과 높은 규범적, 사회적 통합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문화적 수용능력의 정도가 높은 사회는 문화적 통합력과 감수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

다.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상대주의적,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서로 수용되면서 높은 통합성을 유발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녹여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높은 사회적 갈등, 사회불안정성, 문화적 배타성의 정도가 높다면 외부로부터의 유입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역 내부적으로 볼 때도 사회자체의 내적 결집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낮은 수준의 문화적 정체성은 문화창조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유입된 이질적인 문화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요소는 내부적으로는 사회통합력 향상과 창의성, 삶의 질 향상의 토양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본과 사람의 유입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회문화적 경쟁력의 지표들

사회문화적 경쟁력은 사회문화적 조건과 제능력에 의존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확보되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문화적 조건과 특성은 개인, 기업 및 산업, 지역의 경쟁력을 규정하는 토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쟁력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① 태도, 의식 및 가치 영역, ② 문화 영역, ③ 규범적 통합, 사회안전 수준 영역, ④ 사회적 통합 영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 지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태도, 의식 및 가치 영역

- 글로벌시대에 친화력이 있는 주민들의 태도, 가치관 및 의식 수준을 파악한다.

- 변화에 대한 유연성/적응성
- 기회균등
- 공동체의식
- 연고주의
- 배타성
- 사회가치(근면, 성실, 혁신 등)
- 신뢰성
- 관용성

#### □문화 영역

- 지역 내의 문화 기반시설 규모와 여가 여건, 문화의식과 문화정책 등 문화영역의 수준을 파악한다.

- 인구당 공원면적
- 인구당 공연면적
- 인구당 도서관수
- 인구당 박물관수
- 인구당 장서수
- 근로 및 여가시간
- 문화적 다양성 인식
- 타문화수용성/문화적 개방성
-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문화 인지수준
- 문화정책(전통문화의 보존과 재창조지원, 문화산업진흥, 국제적 문화교류지원 등)

#### □규범적 통합, 사회안전 수준 영역

-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재해 및 사건발생 정도, 법 규범의식 등을 통해 사



회의 안전수준, 질서의식 및 규범적 통합 정도를 파악해낸다.

- 인구당 화재발생건수
- 인구당 교통사고건수/교통사고사망률
- 인구당 범죄/폭력범죄 발생건수
- 알콜/약품남용
- 법의식

□ 사회적 통합 영역

○ 사회복지 수준

- 보건의료관련 시설 및 서비스, 공적 복지비 규모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능하는 측면을 평가한다.

- 평균 기대수명
- 인구당 병상수
- 인구당 의사수
- 유아사망률
- 의료비지출비율
- 사회복지비지출비율
- 사회복지만족도
- 실업률
- 인구당 자원봉사자수

○ 사회형평성 수준

- 성평등과 소득분배의 정도에 따라 사회형평성, 즉 사회적 평등성 수준을 파악한다.

(성평등)

- 성별 임금격차율
- 자치단체에서의 5급이상 여성 비율
- 여성권한 정도
- 여성정책

(분배형평성)

- 소득분포: 상위와 하위 각각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택보유율
- 차량보유율

○ 사회적 긴장과 갈등 수준

-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